

보도시점 2023. 8. 31.(목) 12:00
(2023. 9. 1.(금) 조간)

배포 2023. 8. 31.(목) 09:00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 설계 착수

-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하는 통합플랫폼 구현 목표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통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DPG허브’의 상세설계를 위한 ‘DPG허브 정보화전략계획 착수보고회’를 31일 개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으로 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DPG허브’는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원스톱 간편인증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정부 부처 간, 민간과 공공 간 데이터·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 DPG허브 핵심 기능 >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 민간·공공에서 제공하는 AP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PI 등록·저장 및 검색·활용 등을 지원
디지털 파이프라인	■ 제공자와 이용자의 안전·상호호환 운영을 위한 API 연결 기반 통신·보안, API 요청·응답, 트래픽 등 제어
원스톱 간편인증	■ 한 번의 인증 처리 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통합인증 기능 ■ 민간·공공의 API를 연계할 때 재인증 절차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 Key 통합관리 방안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위원회 내 17개 TF 중 하나인 ‘DPG허브 TF’ 위원들도 자문단으로 참석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DPG허브 설계 방향 및 구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DPG허브’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7월 착수한 바 있다.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일반시민을 위해 서비스 개발·시험·실증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 인프라이며, ‘데이터레이크’는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민원·헬스케어·스마트시티·소상공인 등)를 분야별로 정제·축적하여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분석환경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필수 기능 구현을 완료하는 대로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기획국장은 “수많은 민간·정부 영역의 서비스와 데이터가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국민이 편리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DPG허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의 조속한 구현을 통해 기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발·제공을 넘어 민간 주도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6114)
		담당자	사무관	권상욱 (044-202-6158)
< 공동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윤희봉 (02-750-4781)
		담당자	사무관	박영규 (02-750-4782)
< 공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플랫폼기술전략팀	책임자	팀 장	윤희근 (053-230-1731)
		담당자	선 임	강현우 (053-230-1797)